LPG 유통마진 확보위해 “배송 개선”

산자부가 LPG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LPG유통구조개선전문가협의회는 11월29일 3개 LPG배송센터사업자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3개 시범사업자는 충남 당진군 서해LPG, 강원 속초시 영동가스충전소, 전남 영광군 영진에너지로 LPG 배송 LPG 배송센터 시범사업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진행기간 동안 사업평가와 보완을 하게 된다.

LPG 배송센터 시범사업은 날로 치솟고 있는 국제가격에 대비하고 프로판(Propane) 유통과정에서의 마진률을 개선해 서민연료인 LPG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LPG 가격은 매년 상승해 2000년 프로판 300달러/부탄(Butane) 305달러, 2001년 프로판 275달러/부탄 240달러, 2002년 프로판 215달러/부탄 185달러, 2003년 프로판 325달러/부탄 310달러, 2004년 프로판 290달러/부탄 294달러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자동차용으로 쓰이는 부탄의 유통체제는 수입사, 충전소, 소비자의 3단계이지만 가정용으로 쓰이는 프로판은 수입사, 충전소, 판매소, 소비자의 4단계를 거쳐 경쟁으로 판매소의 마진률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은 마진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2/02>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